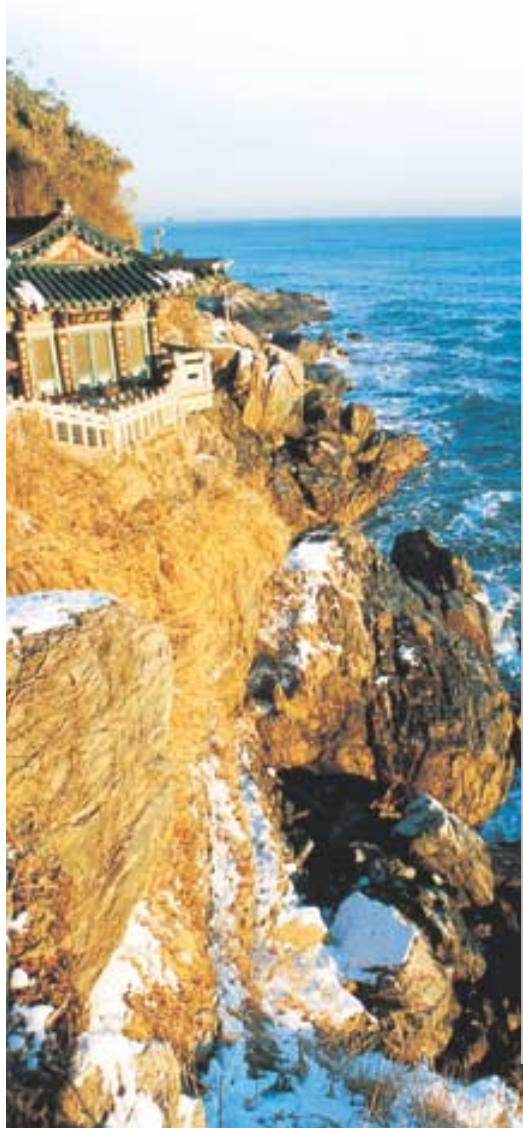


동해 일출과 함께 마음의 문은 열리고

관음보살 진신 머무는 곳, 흥련암
자연 벗삼아 새해 발원 안성맞춤



올해 남은 날도 이제 일 주일 남짓. 송구영신의 매듭을 준비할 시점이다. 그의 식으로 해넘이, 해맞이만한 것이 또 있을까. 더욱이 그곳이 부처님이 계시는 산사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해넘이, 해맞이 법회가 열리는 사찰을 찾아가 활기찬 새해를 계획해 보자.

관음기도도량 낙산사 흥련암
동해의 일출이 절경인 해안절벽 의상대. 거기서 지척인 흥련암(왼쪽사진)은 남해 보리암, 강화 보문사와 더불어 관세음보살이 현신한 한국의 3대 관음 성지중 하나다. 특히 흥련암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의상과 원효 두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관세음보살의 진신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곳을 찾으면 으레 누구나 한 번쯤 범당 안을 두리번거리게 된다. 마룻바닥 어딘가에 뚫려진 '구멍'을 찾아서다. 길이 8cm 정도의 정사각형 구멍. 뚜껑 열고 들여다보았다. 깊이가 10m쯤 될까. 암자 아래 좁



동해바다를 훤히 내려다 보이는 흥련암에서 기도정진을 하고 있다.

고 긴 바위틈새 아래로 바닷물이 들락거렸다.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관음굴로 알려진 바로 그 바위틈새다.

이런 믿을 때문일까.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게 해 달라고 구멍에 대고 합장한 채 절을 했다. 그 말씀을 옆에서 들은 한 스님. "마음의 문을 열고 그속에 울려 퍼지는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들어야지 구멍만 쳐다보고 절한다고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하며 한말씀 하셨다.

연말연시 낙산사 흥련암을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 서라운드 스피커나 다름없는 범당 바닥의 구멍을 통해 해조음을 들으며 관음수행도 접해보고 새해의 간절 한 발원을 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흥련암을 찾은 13일 새벽 5시, 철야 정진 한 탓에 약간 상기된 한 보살의 눈가에서 환희심을 보았다. (033)672-2478.

글=김주일 기자
사진=임민수 기자

해넘이, 해돋이 법회를 여는 사찰과 단체
△양양 낙산사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과 함께 1월 1일 오전 9시 의상대에서 타종법회를 한다. (033)672-2447

△전국역불만일회는 고성 건봉사에서 새해맞이 철야 정진법회를 한다. 구랍 31일 오후 4시 조계사에서 출발해 건봉사에서 철야기도를 한다. (02)732-1215

△경주 석굴암에서는 31일 밤 11시부터 제야의 종 타종 법회를 연다. 식전에는 작은 규모의 산사음악회도 진행되며, 타종법회 후에는 철야정진기도를 한다. (054)746-9912

△제주 약천사에서는 31일 저녁부터 1080배 참회정진 기도법회를 갖고, 인근 송악산으로 옮겨 오전 7시 해맞이 법회를 연다. (064)738-5000

△서울 소림정사는 1월1일 경주 갑포 앞바다에서 '새해 해운 기도 및 철야 용맹정진법회'를 갖는다. 31일 오후 1시 잠실롯데월드 옥외주차장에서 출발한다. (02)511-6210

신명 365일
이젠 실천이다

12월 - 회향의 달

- 회향은 실천의 완성
- 나에서 너, 너에서 우리로
- 아름다운 마무리
- 회향, 새로운 시작

회향, 새로운 시작

시작과 끝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동시 작용이기 때문이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되어 삶을 이끈다.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보다 나은 출발을 위해 회향의 삶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병희·서갑희씨(56)는 20대 초반 대전의 한 미용실에서 함께 일하며 사귀던 친구다.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미용실을 하며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를 한 지도 벌써 7년. 이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회에 회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불자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로식당에서 주방일과 청소 봉사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나보다

지시절 등에서 멈출 날이 없다. 불교를 알게 된 인연을 회향하는 한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누어도 세상은 훨씬 살만해질 것"이라는 이들의 소박하면서도 단순한 보살행. 그들은 날마다 회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

불교호스피스 요양센터 '정토마을'에는 임종을 눈앞에 둔 병자 10여명이 24시간 간병을 기다린다.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은 삶의 한줄기 빛이라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스님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했나'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부처님 제자로서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이라는

"봉사의 삶은 부처님 은혜 갚는 일"

모든 공덕 일체중생에게 돌려야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면서 "더 나이들기 전에 남에게 도움되는 삶을 사는 일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말한다. 자신들의 공덕을 사회에 회향함으로써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을 보여준 이야기다.

도봉경찰서 불교회는 나누면 세상이 밝아진다는 평범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시간, 돈, 물건 등의 5%를 소외받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주자는 운동을 펴고 있다. 이들의 봉사는 도봉관내 영세가정과 경로당, 임종의 집, 복

한 마디로 대담을 대신한다. 회향하는 삶이 진정한 불자의 길이라는 속내가 담긴 스님의 답변이다.

12월, 올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다. 사람들은 더 나은 새해를 맞이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회향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의 뜻을 좇아 따르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자로서의 삶은 곧 회향의 삶이라는 의미가 담긴 가르침이다. 박봉영 기자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중에 '리틀 붓다'라는 영화가 있다.

키아누리브스 주연의 이 허리우드 영화는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다. 이 영화의 여러 가지 장면 중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기 직전, 마왕으로부터 갖가지 방해받는 장면이다.

마왕은 부처님의 성도를 막기 위해 갖가지 공포를 몰고 온다. 뇌성벽력을 치고 성난 파도를 몰고 오는가 하면, 독종과 악귀들로 위협하고 군대를 끌고 와 갖가지로 공격하였다.

이 방법도 통하지 않은 마왕은 유혹

작전을 쓴다. 마왕은 자신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딸 넷을 내려 보내 부처님의 욕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역시 이 방법에도 실패한 마왕은 마지막으로 직접 그 모습을 나타내어서 자리에서

마음비추기

일어나 떠날 것을 명령한다.

부처님이 마왕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이 이야기는 불자들에게 있어 너무나 귀에 익숙한 이야기이므로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영화는 바로 이 부분에 이르러 마왕의 존재가 무

엇인지 그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 때 부처님은 앞에 보이는 마왕이 어떤 존재인지 바라보게 되는데, 그 얼굴은 놀랄게도 부처님 자신의 모습

항상 자신의 마음을 응시해야

이었다. 그 마왕의 몸도 부처님 몸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그루의 나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영화 속의 부처님은 자신의 모습을 한 마왕의 모습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응시한다. 그 응시에 의해서 마왕은 점

점 흉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마침내 악의 극치를 이룬 얼굴로 나타난다.

마왕은 최종적으로 대지의 진동과 함께 부처님과 분리되어 떠나게 되고, 뒤이어 깨달음의 장면이 연출된

다. 이 영화를 훌륭하게 여길 수 있는 점은 마왕의 존재를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적절하다는 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마왕이나 마귀를 자신의 마음을 떠난 대상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흉악한 모습을 한 악

의 근원으로서의 마왕이나 마귀가 따로 있어 인간과 세상을 파멸시킨다고 여기는 것이다. 앞에 나오는 장면 중 부왕의 죽음을 앞세워 유혹한 것은 애착이고, 다음의 갖가지 형상을 한 악귀나 검은 군대는 사견과 욕망과 어리석음이며, 마왕의 딸들은 애욕과 음욕이다. 그리고 마왕은 인간 내면에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근본무명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든 작든 마음 속에 마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영화 속의 부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듯 항상 자신의 마음을 응시해야 할 것이다.

寂然



◇'불자로서의 삶은 곧 회향의 삶'이라는 가르침은 수많은 경전 속에 담겨 있다. 불교 호스피스요양센터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과 불자들이 음성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